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기업들, '관세 유예' 마감 다가오면서 수입 압박감 커져
- Bloomberg: CEO들은 '트럼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 Bloomberg: 미 신규실업 수당건, 지난 4주간 최저 기록

[미국 금융]

- WSJ: 미 국채 시장, 미 경제에 경고신호 보낸다

[미 세제 개혁]

- Bloomberg: 트럼프 세금 개혁법 진통 끝에 하원 통과

[오일]

- Bloomberg: OPEC+, 7월 대폭 증산 논의...하루 41만 1천 배럴 증산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NYT: '불확실성'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들과 투자자들
- WSJ: BJ's 클럽 체인, 순이익 1억 5천만 불 달성... 예상치 뛰어넘어
- Bloomberg: 랄프로렌, 후반기 성장세 둔화 예상
- Bloomberg: 샤오미, 신형 SUV와 반도체 칩 기술 선보여
- NYT: BYD의 유럽 판매량, 처음으로 테슬라 넘어

[보고서]

- 골드만삭스: 미 경제 전망 상향에 침체 가능성 낮춰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It's 'Crunch Time' for US Importers Facing Tariff Deadlines, Customs Audits 미 기업들, '관세 유예' 마감 다가오면서 수입 압박감 커져

- 미 기업들은 트럼프의 90일 관세 유예 기간 마감이 다가오면서 제품 수입에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수입품이 국경을 넘으면서 복잡해진 신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 현재 외국산 수입 업체들은 두 가지 관세 마감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90일 기간이 7월 중순에 끝난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관세 휴전 상태에 있는데 중국 관세 유예도 8월 중순에 끝난다.
- 이 두 가지 마감일을 앞두고 관세 타격이 없거나 유예 기간이 끝날 경우 이를 업체의 관세 비용은 크게 오르게 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CEOs Are Already Feeling Trump Fatigue CEO들은 '트럼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 많은 CEO들이 트럼프의 경제 방향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는 물가 상승 억제 및 경제 호황을 기대하며 트럼프를 지지한 그들의 예상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 4월 덜러스 연준의 조사에서 전자제품 제조업체 임원은 "고객들이 관세를 감당할 수 없어 이미 주문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생산 능력이 저연되고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하며 우려를 표했다.
- JP 모건 리서치는 관세 인상과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출과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CEO 신뢰 지수도 하락했다. 설문조사에서 CEO의 62%가 향후 6개월 동안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Initial Jobless Claims Decline to Lowest Level in Four Weeks

미 신규실업 수당건, 지난 4주간 최저 기록

- 미 최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지난 4주에 걸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무역 불확정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시장이 양호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5월 17일 끝나는 주의 신규 실업 청구건수는 2천건이 늘어난 22만7천건의 기록 했다고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부는 밝혔다.
- 기존 수당을 계속 받는 신청건수는 1백90만건으로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What Rising Treasury Yields Tell Us About the Economy

미 국채 시장, 미 경제에 경고신호 보낸다

- 미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오늘 목요일 오전에 30년 국채 금리는 5.117%를 기록 중이다. 어제는 지난 2023년 이래 최고치로 마감됐었다.
- 전문가들은 국채 시장은 미 경제에 인플레가 큰 리스크를 주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이는 관세 또는 감세 또는 이 두 가지 요인이 겹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금리 인상은 경제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이기보다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과 연방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 JP 모건의 CEO는 낮은 성장과 높은 인플레를 보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최근에 경고했다.

WSJ 기사

[미 세 개혁]

Bloomberg: Trump Tax Bill Narrowly Passes House, Overcoming Infighting

트럼프 세금 개혁법 진통 끝에 하원 통과

- 연방 하원은 트럼프가 서명하게 될 세금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연말 세금 인상을 막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신에 미국의 부채가 들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법안은 부채 상한선도 4조 달러를 늘렸는데 연방 재무부는 이 내용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빠르면 8월이나 9월에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법안은 상원의 심의를 받을 예정인데 상원 공화당 그룹은 내용 수정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법안은 늦어도 8월까지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 한편, 이 법안에는 전기차와 배터리 등의 세금 공제의 단계적 폐지를 담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Bloomberg 기사

[오일]

Bloomberg: OPEC+ Discusses Another Super-Sized Output Hike for July

OPEC+, 7월 대폭 증산 논의...하루 41만 1천 배럴 증산

- OPEC+가 당초 계획량의 3배인 7월 하루 41만 1천 배럴 증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 과잉 생산 회원국 처벌, 시장 점유율 회복 등 다양한 동기가 있다고 밝혔다.
- OPEC+의 리더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할당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생산량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모건스탠리의 글로벌 석유 전략가인 Martijn Rats는 “과잉 생산 국가들의 준수율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5월과 6월과 유사하게 하루 41만 배럴 추가 증산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NYT: Baffled by the Trump Tariffs, C.E.O.s Lean on the Word ‘Uncertainty’ ‘불확실성’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들과 투자자들

- 포드와 GM이 자신들의 미래 매출과 이익에 대한 전망을 유보했다. 포드의 CFO인 Sherry House는 공급망 차질로 인한 생산 중단, 관세 정책의 방향, 그리고 이로인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의 불확실성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델타항공, Sketchers, UPS 등도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FactSet의 부사장 겸 선임 실적 분석가인 John Butter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업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의 87%가 ‘불확실성’이란 단어를 언급했으며, 이는 전 분기 38%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관세’는 93%, ‘경기 침체’는 30% 정도 실적 발표에서 언급되었다. 특히 ‘경기침체’란 단어는 전 분기 3%에서 크게 증가했다.
- 정확한 시장 전망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세 정책 방향 및 소비자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다.
- 이에 따라 위험회피 성향의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안전 자산에 자금을 보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미국 정부의 정책이 시장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NYT 기사

WSJ: BJ's Wholesale Club Results Strengthen, Backs FY25 Outlook BJ's 클럽 체인, 순이익 1억 5천만 불 달성... 예상치 뛰어넘어

- BJ's Wholesale Club이 멤버십 수수료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1분기 순이익 1억 4천9백 80달러(주당 1.1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의 1억 1천100만 달러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 이 회사는 지속적인 고객 유입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 매출은 49억 2천만 달러에서 51억 5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FactSet조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순이익은 주당 92센트를 예상했으며, 매출은 51억 9천만 달러를 예상했었다.

WSJ 기사

Bloomberg: Ralph Lauren Expects Robust Growth to Slow Amid Weakness in US 랄프로렌, 후반기 성장세 둔화 예상

- 랄프로렌은 미국 소비자 지출 약화로 올해 초반 강력한 성장세에 비해 후반기에 매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 최근 랄프로렌은 지난 분기 매출이 13% 증가했는데, 이는 월가 예상치의 두 배에 달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한편, 랄프로렌은 경쟁사보다 중국 제품 수입이 적어 고율 관세로 인한 타격을 줄였다. 또한 명품 브랜드 상품보다 저렴하여, 미국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Xiaomi Billionaire Touts SUV, Chinese Chip in Tech Showcase
샤오미, 신형 SUV와 반도체 칩 기술 선보여

- 샤오미가 베이징 쇼케이스에서 신형 SUV인 YU7과 반도체 칩 Xring O1을 선보였다.
- 샤오미의 창업자 Lei Jun은 YU7이 한 번 충전으로 76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시속 0km에서 시속 100km까지 3.23초 만에 도달할 수 있어 테슬라의 모델Y보다 빠르다고 주장했다. Xring O1칩은 애플과 퀄컴의 칩과 동등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쇼케이스에서 샤오미는 향후 5년간 연구 개발에 2백8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며, 저가형 스마트폰과 가전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Bloomberg 기사

NYT: China's BYD Outpaces Tesla in Europe for First Time
BYD의 유럽 판매량, 처음으로 테슬라 넘어

- BYD가 지난달 유럽에서 테슬라의 판매량보다 66대 많은 7천 2백31대의 배터리 전기차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70% 급증한 수치이다.
- JATO의 애널리스트 Felipe Munoz는 “소폭 차이지만 이는 유럽 자동차 시장의 분수령이다.”고 말하며 “유럽 연합이 국내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관세를 부과했지만, 여전히 국내산 제품보다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동시에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던 테슬라는 4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하여 4월 판매량 순위가 11위로 떨어졌다.

NYT 기사

[보고서]

골드만삭스: Raising Our US Growth Forecast and Lowering Our Recession Odds in the Wake of a US-China Trade Deal
미 경제 전망 상향에 침체 가능성 낮춰

- 트럼프가 4월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90일 유예했다. 골드만삭스는 관세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번 조치는 당초 미국 경제 전망에 반영했던 골드만삭스가 예측했던 관세 비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 즉, 이같은 완화적인 상황과 지난달 금융 시장은 개선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골드만삭스는 올해 4분기 미 경제 전망을 작년 4분기와 비교해 0.5%포인트 올린 1%로 예상했다. 향후 12개월 침체 가능성도 35%로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

국가부채 '공포'에 요동치는 미국·일본 국채 시장...한국은?
재정적자 우려...선진국 장기를 국채 금리 불안
영국·독일 국채 금리도 들썩...'채권자경단' 역할 주목
국고채 금리 변동폭은 제한적...하반기 2차 추경 논의 촉각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 국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섰고, 일각에서는 글로벌 국채 시장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5%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는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으며 영국·독일 등의 장기물 국채 금리도 상승세다.

한국은 아직 국고채 금리 변동폭이 크지 않지만 대선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